

##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나아 갈 길



◇본회 최종완회장은 지난 7월 18일(월) 회원사인 서광공작주식회사(성남시 삼평동 소재)를 방문하고 동사 임직원에게 행한 강연에서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기술개발 뿐이라고 말 하였다. 이 날 방문에는 정규영부회장도 동행하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에 대하여 여러분과 더불어 얘기를 나누어 볼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회사서 처음 왔읍니다 마는 이런 회사가 없었던 들 여러분이 만들고 계시는 이형관이라던가 밸브를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야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는 김만영회장 이하 사장님 이하 간부들이 땀 흘리고 애써서 이만한 기업체를 이룩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

서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해 고맙습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마는 중공과 소련을 다녀온 얘기와 함께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몇해전 중공에 갔을 때 호텔에서 일하는 중학교 정도 졸업한 여자종업원에게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았더니 3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환율이 3원이 1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천원 가량 받고 있었고 요새는 한 4.5년 경력가진 분의 월급이 대략 2만5천원을 받고 있다고 최근 중국에 다녀온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공산국가이고 해서 주거비가 저렴합니다. 물가가 쌉니다. 우리나라의 2만5천원 보다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만5천원이라는 월급이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텔레비 등 전자제품을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자제품 수출액이 100억불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심주특구에 가보았더니 중국사람이 삼성전자의 텔레비공장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조립라인도 우리와 꼭 같아요. 심주특구에는 월급이 좀 많아서 7만5천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은 꼭같더라 그리고 이사람들이 텔레비를 만들어서 필립스 상표를 붙여서 불란서 이태리 미국에 대량 수출하게 되었으니 삼성전자, 금성 이런 회사 텔레비 수출하기는 다 틀렸읍니다. 이제 곧 텔레비수

출 못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제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만들 때 월급 적은 나라가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와이셔츠 브라우스 이런 것을 중공이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은 끝장입니다. 중국사람이 우리보다 월급이 적거든요. 같은 물건 만들 때 월급 적은 나라가 이기게 되어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물러서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중국사람이 못 만드는 것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공장의 월급수준이 보너스까지 합쳐서 약 3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30만원 주는데 중국에서는 7만원 준다. 이러면 같은 물건 만들 때는 중국이 전부 차지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중국사람이 만들 수 없는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월급이 험해도 못만드니까 우리가 월급 한 30만원 주고도 국제적으로 살아갈 길이 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국사람보다 월급을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길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자꾸 개발해서 중국사람이 벨브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계장이 달려서 구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팔면 돈 많이 받는다. 그러면 월급 많이 주고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중국사람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수준의 비슷한 것을 만들 때는 생산성을 높이면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팀 워크라든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사람 10명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3명이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월급 좀 많이 나가도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가난한 이유가 같은 선철을 만드는데 포항제철은 한사람 쓰면 1톤을 만드는데 중국사람은 10사람이 1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철공업이 건디어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분야도 일본에 비하면 중국사람들이 100배 많은 사람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사람들보다 20배 내지 30배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많아도 중국사람한테 이겨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기술과 관리체제 그리고 품질관리가 중요합니다. 품질관리가 왜 필요하냐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국제시장에서 품질이 좋다고 하면 2할3할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품질관리 기술개발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갈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노력해서 오늘 제가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는 구식기계도 있고 새로운 기계도 있고 범용기계도 개발하시고 컴퓨터도 써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컴퓨터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중국사람은 아직 못 쓰는데…… 가령 설계서 수백장을 찾는데 오래된 것은 찾아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주문이 오면 컴퓨터에 넣으면 깨끗한 도면이 나오거든요. 시간적으로 능률이 몇배씩 올라 갑니다. 또 적은 인원으로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사람은 일일이 손으로 그리고 참고에 가서 설계도를 찾고하는데 우리보다 2배 3배 시간이 많이 들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사람 3명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머리를 써서 한사람이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한국의 기계공업이 어떤 수준에 와있는가 하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본에 비교한다면 일본의 1인당 매출고가 약 20만불에서 25만불인데 우리나라의 보통기계공장의 1인당 매출고가 10만불선이고 이 회사는 5만불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노력하지만 일본의 1인당 생산고가 우리보다 3배 내지 3.5배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쓰고 기계도 좀 연구하고 작업표준도 연구하고 품질관리도 연구하면 아마도 우리가 능히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본 도요다자동차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셋팅을 하는데 이틀반이 걸렸어요. 그 이틀반동안 다른 작업이 다 중단됩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20분에 세팅하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틀반 놀던 전 라인이 20분에 하게 되니까 세계 제일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자동

차가 팔리는 것이 그러한 모든 사람이 노력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제가 2주일전에 소련을 다녀왔습니다. 소련이 아시다시피 큰나라이고, 자원이 많고 우주개발에서 세계 최선단을 달리고, 초음속전투기 만들고, 발레같은 것도 최고고, 스포츠도 금메달을 따는데 이 나라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호텔에 짐을 가지고 가서 체크인 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려요. 비행장에서 짐 찾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가서 열쇠 받는데 2시간 반 걸리면 욕이 나오고 할것입니다. 소련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술도 있고 다 있어요. 소련에서 공작기계 만드는 공장에 가 보았는데 아주 최신식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3,2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방측 선반보다 크기가 훨씬 커요. 설계가 좀 좋지 않아요. 1년에 몇대 만드느냐고 물으니깐 400대인데 액수를 물어보고 1인당 생산성으로 따져보니까 1인당 3만불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아주 고급공작기계를 만드는데 3만불입니다. 그러니 일본의 7분의 1의 생산성을 가진다.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너 좋고 나 좋고 이런 사고방식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영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400대 만들어라 하면 400대 만들어 갖다 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되니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으니깐 느리고 적당히 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주의 소련의 병폐입니다. 그 좋은 시설, 그 방대한 국가, 여기서 효율이 우리 한국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능율을 못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겠지만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겠다 해서 경제체제를 만들어야겠다. 일 많이하면 보너스를 더 주고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겠다고 몸부림하고 그러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70년간 공산체제를 했는데 그 체질이 몸에 박혀서 안됩니다. 이 회사 사장님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무척 피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로운 체제가 훨씬 우위의 체제입니다.

중공이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국의 체제하다가 망해서 도저히 그 체제가 지고는 가난해서 안되겠다.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해방후에는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에서는 싸우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 체제가 중국보다 낫다. 우리가 1인당 GNP가 2,800불 중국이 400불 내외 일것입니다. 한 7배 앞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그 동안 노력한 가운데에서 이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가려는데 지금 선진국이 문을 막고 있습니다. 달



리 환율 올리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1년에 새로 자란 젊은 사람이 45만명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1년에 35만 내지 40만개의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 내야 내년에 졸업하는 사람이 직장을 갖게 됩니다.

40만개의 직장을 만들려면 1년에 적어도 저축을 30억불을 해야하고, 경제성장율은 적어도 7%이상해야 35만개 이상의 직장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이 회사에 올때 그해에 회사가 늘어서 채용했으니까 그만큼 경제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직장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후배들의 직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7%의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새로운 직장이 생겨나지 않고 실업자가 늘어 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떨어지고 서로 괴로워집니다. 그런 괴로운 일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은 박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개발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하는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효성중공없에 있을 때 효성에서 변압기에 구멍을 1년에 수십만개를 뚫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가니까 단드릴로 하나씩 뚫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드릴로 2개 내지 4개씩 뚫으면 생산성이 4배 오르지 않느냐 해서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 생산성연구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쉽게하는 방법이 없을까, 좀더 빨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공정을 되풀이 안하고 같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데, 철판을 끊을 때 깨끗히 끊으면 그 다음에 용접할 때 쉬운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품질관리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의 99.9%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조직적인 노력 여기에서 우리 산업의 살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도 많으실 것입니다만 모두 대한민국이 살아 가려면 기술개발, 품질관리, 생산성향상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온 같은 노력으로 연구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공업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미국 일본보다 월급이 싸니까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계공업은 10년에서 15년간은 잘 조직하고 연구하면 수출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제철산업이 없어 철판을 일일이 외국에서 사와야하고 중국은 따라오겠지만 상당한 기간 기계공업은 우리나라의 주력기업이다. 상당기간 유망업종이다 이제부터 힘을 합치면 국제적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 국내적으로도 좋은 업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도 용기를 가지고 한국의 여건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계공업이 이제부터 우리의 주력기업으로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자부심과 그러한 전망하에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큰 기업이 되시고 여러분 장래에 큰 발전과 성과 그리고 자기자신을 설게하고 좋은 기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하면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